

전남도 5곳 기관장 인사청문회 한다

도-의회 대상 합의

전남개발공사, 전남복지재단, 전남신용보증재단, 전남생물산업연구원, 전남발전연구원 등의 사장 또는 원장 내정자는 앞으로 전남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전남도와 전남도의회는 이들 기관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에 합의했다.

27일 전남도와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양 기관은 전남도의회 인사청문회 도입에 합의했다. 전남도의회는 이들 기관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에 합의했다.

-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장
- 전남개발공사 사장
- 복지재단 이사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 생물산업연구원장
- 전남발전연구원장

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협약한다. 대상기관은 전남개발공사 등 5곳으로, 현

재 공적인 전남복지재단 이사장 등 상반기부터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전남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사장과 원장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를 주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명현관 의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하고 "(기관장을 내정하고 나서) 도의회가 특위를 구성하기에는 시간상 촉박하다"며 "상임위에서 기관장 내정자에 대한 능력을 공개적으로 검증하고 상임위의 견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전남도의회 상임위원회가 정책 및 도덕성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광주시와 광주시의회는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주환경공단 등 공사·공단 4곳과 광주여성재단, 광주문화재단, 빛고을노인재단, 광주신용보증재단 등 출연기관 4곳의 임원에 대한 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한승원 칼럼

요즘의 어지럽고 메스꺼운 세상의 한 변두리에서 '정직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한다. '논어'에 나오는 섭공과 공자가 주고받은 말을 떠올린다. 섭공이 "우리 마을에 한 아버지가 양을 훔쳤는데, 아들이 관아에 보고를 하고 증인을 했습니다."라고 했다. 이에 공자는 "우리 마을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숨기고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 숨긴다."라고 대답했다.

이것은 유학의 근본정신인 효를 강조하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오늘날의 법에서는 중죄를 지은 아버지를 아들이 숨겨 주는 것, 아들의 범죄를 아버지가 숨겨 주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그것은 부정직의 근원인 이 세상 원죄의 뿌리가 유학에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원제 식민지 시대의 앞길 장창한 조선의 청년들은 일본국의 권력에 아부·아첨하고 앞날을 보장 받아야 하느냐, 민족적인 양심에 따라 절개를 지키고 저항을 해야 하느냐를 놓고 고민했다.

하느냐,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고 그냥 내 일만 묵묵히 하고 살아야 하느냐를 놓고 고민했다. 문학인들 가운데는 독재정권에 가담한 출세지향주의자, 민주화운동 참여자, 순수문학파의 세 갈래로 갈리었다.

이제 자본주의 시대에는 누항 속에서 속물처럼 부정직하게 해파리처럼 허물허물 살아야 하느냐, 양심에 따라 뼈 있게 살아야 하느냐 하고 고민하게 된다. 이 시대에는 돈과 권력이 신(神)이다. 사람들은 모두 돈과 권력 앞에서 몰려들어 쫓겨나고 있다.

"더러운 돈은 씻어 버리고 써라"라는 서양의 속담이 있다. 정치인들의 심장(양심)은 허 안에 들어 있다. 그들에게서는 정직과 양심이 허깅에서 쫓겨나 버려진 나뭇가지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다.

그들은 최고 권력자 앞에 쫓겨나 할 때 양심의 가책을, 목에 걸려 걸리 적거리는 담처럼 꿀꺽 삼키고 좌고우면하며 아무하고 아첨한다. 담이란 것

정직에 대해

민족적인 양심에 따라 살았던 운동주 시인과 친일을 했던 안서 김억 시인의 두 극단적인 예를 들어 보자.

운동주는 '서시'에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해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 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라며 고뇌와 결의를 노래했다.

이에 비해 친일파 시인 가운데 한 사람인 안서 김억의 '해파리의 노래'를 읽어 보면 그의 미묘한 심사가 읽힌다. 소월의 스승인 김억은 자신을 빼고 없고 고깃덩이밖에 없는 해파리에 비유하여 친일하는 자료서의 고뇌를 표현하고 있다. "...자유롭지 못한 이 몸은 물결을 따라 바람결에 따라/ 하염없이 뒀다 잠겼다 할 뿐입니다./ 북이는 내 맘의 설움과 기쁨/ 같은 동무들과 함께 노래하려면/ 나면서부터 말도 모르고 라임도 없는 이 몸은/ 가엾게도 내 몸을 내가 비빌며..."

60년대와 70년대의 유신독재 시대, 80년대의 군부독재 시대의 젊은이들은 독재정권에 협력하여 출세해야 하느냐, 민주화 투쟁의 대열에 참여해야

는 밖으로 뻗은 가래짐이 되는 것인데 그들은 거리낌 없이 꿀꺽 삼키곤 하는 것이다. 부정직한 공무원이나 기업가들과 부자들의 심장(양심)은 향문과 인침에 있는 대장 속에 들어 있다.

해외에 4조 원 이상을 투자했다가 본전도 건지지 못한, 그 사업을 주무 때 얼마나 많은 공무원과 기업가들이 떡고물을 챙겼을 것인가. 20조 원 이상을 쏟아 부은 4대강 사업을 주무는 자들 또한 얼마나 많은 고물을 삼켰을까.

정경유착으로 인해 검은 돈(비자금)은 돌고 도는데, 그들은 그것을 감쪽같이 씻어 버리고 사용하지만, 가끔 씻어 유통하는 과정에서 풍진 냄새 때문에 들뜬이 나서 굴비처럼 썩어 감옥에 간다. 한때 감옥에 있는 그들을 풀어 주자고 여론을 조성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자본주의 세상의 내로라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기원하고, 외세에 이는 바람에도 부끄러워하는 자들을 찾아보기 힘들다.

<소설가>

“구의원 횡포” VS “정당한 의정활동”

광산구 공무원 “과도한 자료 요구·강아지 비유”

구의원·의회 “마땅히 해야 할 일 했을 뿐”

광주 광산구 공무원들이 한 구의원의 횡포가 너무 지나치다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해당 구의원과 의회는 정당한 의정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맞서면서 양측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광산구 공무원 500여명은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광산구의회 A 의원이 의정 활동의 법과 테두리를 벗어나 공무원들의 인권을 훼손하고 있다”며 제발 방안을 요구했다.

공무원들은 또 지난 22일 A 의원이 방송사 인터뷰를 통해 “강아지한테 물린 격이다”며 발언한 것과 관련, 공무원들을 강아지로 비유했다며 지난 26일 A 의원을 경찰에 모욕죄로 고소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광산구 공무원들이 지적하는 A 의원의 횡포는 과도한 자료 요구다. 공무원들은 A 의원이 2013~2014년 구의 보조금 집행 내역 자료를 요구하면서 지나치게 많은 자료를 요구, 업무 방해를 초래하고 정신적인 고통까지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또 “퇴근하고 늦은 밤에 수시로 전화한다”, “업무시간에 현장 실사 동행을 요구한다”, “특정 기관 단속을 요구한다” 등 A 의원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집행부가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 제대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 전체 자료를 요청했다”며 “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공무원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막아하고 있다”고 정당한 의정 활동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A 의원은 또 “늦은 밤에 공무원들에게 전화한 적도 없고, 자료제출 요구는 모두 서면으로 요청하는 등 절차를 모두 지켰다”고 해명했다. 그는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겠다고 밝혔다.

의회 측도 이날 본회의를 통해 의장이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이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행위라며 유감을 표명해 양측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눈폭풍에... 희미한 자유의 여신상

타한 가운데 미 기상청(NWS)은 이날부터 이틀간 이 지역에 '눈폭풍 경보'를 발령했다.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이 눈폭풍 때문에 흐릿하게 보인다.

최고 90cm로 예상되는 기록적 폭설이 26일(현지시간) 미국 동북부를 강타한 가운데 미 기상청(NWS)은 이날부터 이틀간 이 지역에 '눈폭풍 경보'를 발령했다.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이 눈폭풍 때문에 흐릿하게 보인다.

연합뉴스

백악관에 소형 드론 충돌... 테러 혐의점 발견 못해

상업용 소형 드론(무인기)이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건물을 들이받은 뒤 추락해 백악관 비밀경호국(SS) 긴급 조사에 나섰다.

브라이언 리어리 SS 대변인은 성명에서 “직경 약 61cm 크기의 상업용 드론이 오늘 오전 3시8분께 백악관 건물 남동쪽 부분에 충돌했다”고 밝혔다. 리어리 대변인은 “경계 근무를 하던 SS 요원이 낮게 날던 드론을 목격했다”면서 “충돌 사고 직후

관바로 백악관에 경계령을 발동하고 해당 건물 주변을 봉쇄했다”고 말했다.

SS는 추락한 드론에서 테러 혐의점 등 다른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앞서 기자들에게 “SS 요원들이 오늘 새벽 백악관 뜰에서 어떤 장치를 수거해 조사하고 있다”면서 “조기 분석 결과 위험이 되는 그런 장치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1636 결과 믿음소망 말하세요

NAVER 대리점모집센터

2014 미스코리아와 함께하는 한글전화번호 1636

모든 상호·이름이 전화번호가 됩니다

기본 숫자번호 바꿀 필요 없습니다

음성 인식 기술

대리점, 에이전시(영업사원) 모집합니다

지사장 김연호 010-8607-3228

2014미스코리아 '황금시연'이 전속모델로 활동하며 모든 당사자들이(주)골미아의 홍보대사로 활동합니다.

2015년 신입생 모집

상해대외경제무역대학 국제경제무역학과

홈페이지 www.suibe.co.kr

2015학년도 9월학기 입학생 모집요강

모집 대상 ▶ 고등학교 졸업자(2015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검정고시 가능

모집 기간 ▶ 2015년 2월 28일까지 (중국어 미학습자 신청가능)

모집 인원 ▶ 30명

수강 기간 ▶ 2015년 3월~8월 (6개월) (1일 6시간, 주 30시간, 총 720시간 이수)

강의 내용 ▶ 중국유학준비과정 중국어 집중훈련 수료 후 중국대학 입학

성공 중국유학 내신 NO! 수능 NO!

입학상담문의 GOChina

www.gochina.co.kr

지금 전화주세요!! 시작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233-9582 (중) 구오팔리